

보도자료



| | |
|------|---|
| 보도분류 | 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 |
| 보도일시 | 2021. 5. 20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작성과 | 신성장산업유치과 |
| 담당 | 과장 김연주, PM 김희정(032-453-7362), 권혜미(032-453-7383) |

“뇌신경 국제학술대회 개막…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기대”

한국뇌신경과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송도컨벤시아에서 21일까지 개최
세계 뇌과학 석학들의 최신 연구 발표…IFEZ 송도, 뇌신경 과학 석학들의 교류의 장”

- 차세대 생명과학을 선도할 뇌신경과학 국제학술대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송도국제도시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20일 개막됐다. IFEZ가 생명과학 연구개발 분야를 이끄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‘2021 한국뇌신경과학 국제학술대회’가 이날 온·오프라인 병행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됐으며 21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.
- 학술대회는 한국뇌신경과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로 국내외 뇌·신경 분야 연구자, 의료인, 공학인 등이 참석, 뇌·신경에 대한 기초연구 성과에서부터 첨단기술과의 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성과들이 논의되는 자리이다.
- 이번 학술대회는 ‘뇌과학의 미래 과제(Future Challenges in Brain Science)’를 주제로 3개의 기조강연과 20개의 심포지엄에서 80여명의 전 세계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- 대회 첫 날인 20일에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에린 슈만(Erin Schuman) 박사가 기조 강연자로 나섰으며 21일에는 미국 솔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(Fred Gage) 교수,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유력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칼 다이서로스 (Karl Deisseroth)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도 강연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다.
- 이번 학술대회는 인천경제청이 ‘연구자들이 교류하는 송도’를 만들기 위해 유치한 대표적인 행사로 지난해 10월 한국뇌신경과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후속 사업이다.
- 현재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굴지의 바이오의약 기업들과 싸이티바(舊 GE헬스케어), 머크, 써모피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, IFEZ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 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.
- 인천경제청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면서 확대 조성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설정하고 송도를 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 국내외 연구자들의 교류·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.
-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“인천은 바이오 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 전 세계 뇌신경과학 기초과학자, 임상의, 관련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뇌신경과학 분야의 기술과 산업의 개척을 이끄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”고 밝혔다.